

민주, 검찰·언론개혁 카드 다시 만지작... '중도확장' 우려도

이재명 '가짜뉴스 책임 부과해야' '처벌회' 검찰 개혁 토론회 열어 일부선 '선명성 경쟁 바람직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언론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당내 강경파 및 핵심 지지층의 '검언개혁' 요구에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중도 표심 확장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

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할 여야 미디어 특위의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행처리 등 강경론이 하나둘씩 분출되는 상황으로, 이 후보도 선대위 첫 회의에서의 언론 개혁 발언을 통해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 촉발행동연대'가 주최하는 4차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범여권 강성 의원을 도입한 '처벌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한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중재법 개정 등으로 대표되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신중론 및 속도조절론에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른 상태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경선 승리 후 중도 확장을 겨냥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개혁 이슈는 다소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검언개혁' 압박을 이 후보 측이 일부 수용하면서 다시금 개혁 행보로 한발씩 내딛게 되는 모양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검언개혁 촉발행동연대' 행사 참석에 대해 "그쪽에서 강한 참석 요청이 있었다"며 "내부검토를 해보니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 개막과 함께 중도 확장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해 "솔직히 후보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은 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오른쪽)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선은 이미 본선에...명당 찾는尹, 이준석 존중 洪

윤석 캠프 여의도 이전 검토 흥측 "당과 최대공약수 정책"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막판 혈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시선은 이미 본선으로 옮겨져 있다.

이례적으로 높은 당원 투표율에 고무된 두 후보는 저마다 경선 승리를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누를 필승전략 구상에 돌입한 모습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최근 캠프 사무실을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여의도 대화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던 '명당'이

다.

캠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라며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당비로 공간을 임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밑에서는 대대적인 캠프 개편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윙' 기조 아래 다른 후보 참모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 선거대책위원회를 새로 짜는 방안이다.

이미 전·현직 의원이 100명 가까이 합류한 가운데 김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할 경우 '해체' 수준으로 캠프를 재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의원도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두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당헌에 규정된 '당무 우선권'을 앞세우지 않고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일정 정도 보장할 것이라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큰 틀의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경선을 마친 후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두는 등 대선출마 경험자다운 행보를 보여왔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은 지키되 후보 개인의 생각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당과 최대공약수를 뽑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 현안에 집중해오던 홍 의원이 이날 문재인 정부의 관련 선거 의욕을 주장하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낸 것도 경선 승리를 확인하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락을 좌우할 신규 당원 19만 명의 표심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선두권 주자들의 확산에도 각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애정있다" 김동연 후보에 '리브콜' 김 "이 후보 납득 안되는 공약도..." 대선 완주 의사 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권 대통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가 제3지대에서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에게 '리브콜'을 보냈다. 이에 김 전 부총리는 "이 후보의 공약 중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선 완주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이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 예방 온 김 전 부총리에게 "김동연 위원장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같이 출범한 관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기존 뜻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금기 깨기라는 것 통해 경제 의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저희 창당 행사에 직접 와주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뵙게 됐다"고 화답한 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지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 후보와의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또 "대선 정국이 지나치게 흥집 내기, 너

티브, 과거 들춰내기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개탄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제가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야당에도 "모레(5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후보 간에 함께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공약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회동 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안한 '양당 체제 종식' 공동선언에 대해 "각자 가진 비전과 콘텐트에 대해 서로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면서 "일부 야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 중에 여전히 기득권인 분들이 계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선거에 나온 분들 모두가 당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뒤 "작년 총선, 금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얼마 전까지 대선 경선 레이스 참여를 양당에서 다 받았는데 전부 거절했다"면서 "완주하지 않고, 편한 길을 생각했다면 당 제안 중 하나를 수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희룡 "호남 비하, 후보가 맹렬한 반성해야"

"호남 애국심·민주 정신 이어받겠다는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3일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지지자들의 '호남 비하' 발언과 관련해 "남 탓할 게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고 재발하지 않게 후보와 진영 내에서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본인이 큰 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치관과 행동 수칙을 강력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꼬리 자르기가 일어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 한마디 잘못 나간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며 "말을 해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해석하고 오해를 푸는 소모적인 과정이 없도록 잘 정리해서 광주 시민들을 만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 정당이 되려면 호남과 함께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무한 반복해서라도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호남과 손을 잡고 호남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호남의 애국심과 민주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비리와 그 안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힘을 실어주면 본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도록 진실, 상식, 정의를 보여드릴 것이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회견에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